청소년복지전공 졸업 구민성 동문 & 상담심리대학원 졸업 권문자 원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한 발짝 가까워진 꿈

상담심리대학원을 졸업한 권문자 원우

마흔이 넘어 새롭게 가진 상담·임상심리사의 꿈

권문자 원우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1기 졸업생이다. 현재 아동연구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확신이 부족했는데,서울사이버대학교 학부 입학 후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본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과정까지 마쳤다.

"좋은 시설의 학교 캠퍼스와 심리상담센터를 갖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우들과 스터디를 하며 오프라인 대학교와 똑같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방문해 교수님들께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 권문자 원우는 현재 상담심리사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심리 평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자격 시험 응시를 갖추기 위한 수련을 받으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제 이름에 붙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상담사 · 임상심리사로서 불릴 수 있어 뿌듯합니다. 특히 나이 마흔이넘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즐겁습니다."